함평엑스포공원에 자동차극장 개장

28일 문열어…2개 관 180대 관람 인터넷 예매·함평사랑상품권 사용 나비축제·국향대전 등 시너지 기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으로 유명한 함평엑스포공 원에 전국 최고 수준의 야외 자동차극장이 개장한 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 함평엑스 포공원에 자동차극장이 문을 연다. 호남권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는 광주와 여수에 이어 세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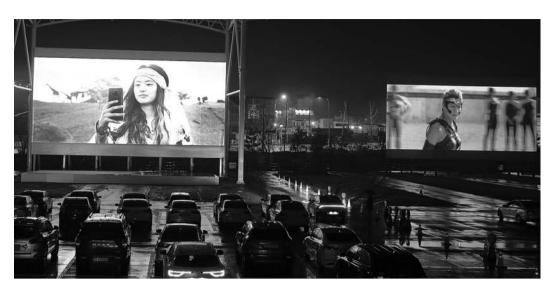
함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함평자동차극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 차장 일원 1만1000㎡ 부지에 대형스크린(23m \times 15m) 2개와 매점, 매표소 등을 조성했다.

총 2개관으로 이뤄진 함평자동차극장은 총 180 대의 차량이 서로 다른 2편의 영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각 상영관은 지역 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한 나비관·황금박쥐관으로 건립했으며 황금박쥐관은 비가림막과 다목적 무대(20m×12m)도함께 설치해 영화 상영 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상시 개최할 수 있다.

함평자동차극장은 개장식 당일인 28일부터 정상 관람(당일 무료·29일부터 사전예때 가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매일(월요일 정기휴관) 오후 7시부터 0시까지 하루 2차례에 걸



함평군은 오는 28일 함평엑스포공원에 야외 자동차극장을 개장한다. 함평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동 차극장은 180대의 차량이 2개 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함평군제공〉

쳐 최신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함평자동차극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자동차극장 가운데 인터넷 사전 예매가 가능한 곳은 함평자동차극장과 CGV × CAR CINEMA 서울랜드점 단 두 곳뿐이다.

함평군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되면 안정적인 극장 운영과 함평엑스포공원 등 인접 관광지에 대한 관광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영방식의 운영 이점을 살려 현장결제 시합평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구매 당시 10% 할인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를 사용해 결제하면 관람료의 10% 가 할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함평군은 자동차극장을 지역민 문화복지 차원에서 조성한 만큼 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 면제 또는 별도의 금액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 함평자동차극장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국내 문화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며 "앞 으로 자동차극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면서 사계절 머물고 싶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마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이웃에 따뜻한 사랑 전하세요

농협은행 함평지부·천지사, 인재양성 1000만원씩 기부

농협은행 함평군지부와 함평군 대동면 사찰 천지사 는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 해 써달라며 각각 1000만원 의 기금을 함평군에 기탁했

천지사는 앞서 지난 21일 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10kg) 1000포를 기탁했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함 평군 인재양성기금을 통해 지역교육복지사업의재원으 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농협은행 함평군지부가 지역인재 육성기금 1000만원을 함평군에 기탁했다.

스와니코코·배우 문예원, 장흥 다문화여성에 화장품 전달

100% 천연화장품 브랜드 스와니코코와 배우 문예원 은 최근 장흥에 거주하는 250명의 다문화 여성에게 전해달라며 화장품 250세트 를 장흥군에 기탁했다. 〈사 진〉

스와니코코는 다문화 여성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250세트를 제공했다.

스와니코코의 전속 모델 인 문예원은 2018년 영화

'곤지암'으로 데뷔, 개성있는 캐릭터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드라마 리갈하이와 하이에나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기탁행사에 참여한 문예원은 "모국을 떠나 농촌생활을 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당당한 한국

여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문예원이 소속된 윌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소리 바다는 지난달 장흥지역 어린이들에게 150켤레의 신 발을 지원하는 등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조선시대 재산 상속·분배 문서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 소장

담양군은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남도 유형 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는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조선후기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재산 분배 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자료다. 특히 장남 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 구별 없이 상속 재산을 기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장흥고씨 양진재파 관계자는 "장흥고씨 양진재 파의 종가 복원 작업을 위해 집안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던 중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 했다"며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돼 종가 복원 작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된 '담양 고세 태 분재기'.

업에 힘이 될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 는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때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을 일으킨 '충렬 공 제봉 고경명 장군'의 후손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 원도심 4개 구역 4.27km 전선 지중화 연말까지 마무리

나주시가 원도심 경관개선과 상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2018년 수립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 3 개년(2019~2021) 계획'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원 도심 4개 구역(영강·금남·성북·이창동) 지중화 사 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중화사업은 공중에 가설된 배전, 통신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작업이다.

나주시는 한전, 통신사와 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해 4개 지역 총 4.27km구간 지중화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 중 성북동권역은 지난해 10월 착공돼 현재 공 정률 30%를 넘어서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 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도로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기 조정 등 보행자 중심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해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은 물론 나주읍성 4대문 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장성 서삼면쌀전업농회, 서삼초교에 찹쌀유과 선물

장성군서삼면쌀전업농회 는 최근 겨울방학이 맞이한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깜짝 선물'로 중암마을기업에서 만든 '찹쌀유과'를 전달했 다. 〈사진〉

중암마을기업 찹쌀유과 는 장성에서 재배된 찹쌀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들

어 명절 선물로 인기다. 서삼면쌀전업농회는 서 삼유치원 어린이와 서삼초

교전교생 및 3월 입학을 앞 둔 신입생 등에게 30상자(100만원 상당)의 찹쌀 유과를 증정했다.

김남수 서삼면쌀전업농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을 아이들 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10–2845–4754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